

미래포럼 창립 1주년 기념 인사말

2006-3-10 6:05~10 조선호텔

No.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미래포럼 창립 1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특별포럼에 참여하여 푸른 미래를 함께 꿈꿔주세요.

특별히 양심 바보로 사는 참여자를 기쁘게 환영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신 여성가족부 장혜진 장관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가 숙지하고 잊지 마세요

미래포럼은 사회각분야의 남녀 90여명 리더들이 함께
전망하는 미래사회, 추구하고 실현할 것은 미래사회,
우리의 다문화대국, 인성하고 상수하는 미래사회에 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미래포럼은 상설부의 등록된 사단법인체이며

<공익성 기부금 소득인정액 등제> 조세

한해 330명의 36회권과 14곳의 법인회권

그리고 4곳의 양심포럼회권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Date

비례대표의 선출당시 선출한 6대 의회 이행을 위해
지난 해에 6회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 ① 가족친화적 기업경영의 필요성
- ② 경영권 이주할 수 있는 문제
- ③ 새로운 보육 패러다임 모색
- ④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Model
- ⑤ 지속가능한 기업경영 문제
- ⑥ 신진주의 신세대 연구 등이
주요 이슈가 되었다.

이들 주제를 갖고 각각이 아닌 상호간에 상의한게로 이들 문제를
지속적인 연구집회가 필요한 문제들이다.

대외협력

여성가족위원회는 가족친화적 기업 추진과 영유아 교육 "등
보육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영권 이주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양극화 해소책의 일환으로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리포트

기업에서는 기업의 미래대안책으로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지원이 주어진다.
 미래포럼의 지향하고 있는 미래사회를 위한 54를 이루고 있는
 최후의 노력에 후속적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성공을 내세워 노력한다.

이런 과정을
 정부와 미래포럼
 상호간의 협력이
 되게 하도록

미래포럼의 도전에 관심을
 대중의 인본주의를 확대하는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을
 공동으로 대안 독자적으로 후속적으로 그 Model 등을
 개발하는 일이다.

자본에서는 특별히 교육의 공동체 운동으로서 후속시위를 활용하는
 지역사회의 공동체 개발안이 해마다 Model로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과 같은 미래포럼의 인본주의, 미래는 이 모델의
 실험을 후진국에 있어서 실험한다. 이런 실험적인 행위를
 미래 학부 학생들에게 미래 포럼의 창설을 한다.

Date

조금전에 개회된 제1회총회에서 2006년도 사업계획이 의결되었습니다.

파라들이 새롭고 보람 있는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회원 및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회원의 참여 확대를 통해 단체비용의 보충이
회원들이 힘을 모아낼 것을 알리게 하느라,

이웃돕기의 회원확대를 통해 단체비용을 충당하고, 이웃돕기, 자원봉사, 후원회
이웃돕기, 후원회 스스로 해결하는 이웃돕기 공동체 활동 등의
회원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회원들이 물론 이대도림의 사회적 인식을 높여주기 하느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의 해소에 힘쓰고, 책임과
가족친화적 비전까지 실현을 위하여
이대도림의 건강관리, 이대도림의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을
그리고 가족친화적 이대도림의 운영을 위한 활동 등의
노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대도림
사무처장

Date

MOOK

이런 일을 할 때 해마다 귀찮게 하셔도
무엇보다도 귀찮고 귀찮고 할 때가 꼭 있겠지요.

지난해 여름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계절이었고, 그 때는 전적으로
탈모약을 먹어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계절이었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계절이었고, 그 때는 전적으로
탈모약을 먹어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계절이었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계절이었고, 그 때는 전적으로
탈모약을 먹어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계절이었고,

이런 일을 할 때 해마다 귀찮게 하셔도
무엇보다도 귀찮고 귀찮고 할 때가 꼭 있겠지요.

이런 일을 할 때 해마다 귀찮게 하셔도
무엇보다도 귀찮고 귀찮고 할 때가 꼭 있겠지요.

최소한 이해를 다짐하는 자리에
 기쁘고 희망을 해주시기 위해 함께하신 장항리 장로님,
 주일학교의 분례를 감당하신 부기장 대학익장님,
 만찬봉사의 진행을 맡으신 권용삼 목사님,

말씀을 권해주신 이영남 장로님, 여영복 주
 그리고 이영남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려오니 인사의 말씀을 거듭합니다.